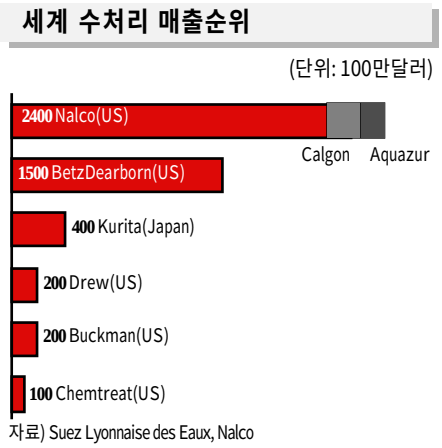
Suez-Nalco 41억달러 M&A

프랑스 유틸리티기업 Suez Lyonnaise des Eaux가 세계 최대의 수처리기업 Nalco를 인수하는데 이어 Calgon까지 인수키로 확정, 수처리제 최강자로 군림하게 됐다.



Suez는 Nalco를 주당 53달러에 25%의 프리미엄을 추가해 인수할 예정이다. Nalco의 부채 4억600만달러도 떠안는다.

Suez는 Nalco, Calgon 인수와 함께 자회사 Aquazur를 포함할 경우 수처리 총매출이 24억달러에 달해 Betz-Dearborn의 15억달러를 60% 추월함으로써 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.

기타 수처리기업의 매출은 일본 Kurita 4억달러, 미국 Drew 2억달러, Buckman 2억달러, Chemtreat 1억달러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.

Suez는 Nalco 및 Calgon 인수에 따라 코스트를 연간 1억달러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본부는 미국 Chicago에 둘 방침이다.

<화학저널 1999/7/26>